

# 가제 '365일 세상의 모든 지혜' 출판 기획 및 심층 시장 분석 보고서

## 서론: 지식 큐레이션 시장의 진화와 융합형 교양 출판의 새로운 패러다임

현대 지식 산업과 출판 시장은 전례 없는 정보의 범람 속에서 중대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과 소셜 미디어 알고리즘이 매일 엄청난 양의 파편화된 데이터를 쏟아내는 가운데, 대중은 지적 굶주림이 아닌 '소화 불량'을 호소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정보 과잉의 시대에는 개인이 방대한 원전이나 문헌을 직접 탐독하며 지식을 체계화하는 전통적인 독서 모델이 점차 붕괴하고 있으며, 대신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무엇이 가치 있는 통찰인지를 선별해 주는 '편집과 기획'의 역할이 출판의 핵심 부가가치로 급부상하였다.<sup>1</sup> 대중은 복잡한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명쾌한 렌즈를 원하면서도, 그 렌즈를 획득하기 위해 과도한 시간과 인지적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은 극도로 기피한다.

이러한 거시적 시장 흐름 속에서 기획된 가제 『365일 세상의 모든 지혜』는 단순한 사실(Fact)의 나열을 넘어선 '지혜의 매트릭스'를 현대적 감각으로 제안하는 야심 찬 프로젝트다. 본 기획은 인문, 사회, 역사, 경제라는 4개의 거대한 대주제를 설정하고, 독자가 책의 아무 쪽이나 무작위로 펼쳐 읽어도 독립적이고 완결성 있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365개의 정제된 지혜로 텍스트를 구조화한다. 이는 현대인의 단축된 주의 집중 시간(Short Attention Span)에 완벽히 부합하는 마이크로 러닝(Micro-learning) 기법을 종이책에 이식하는 시도이며, 동시에 동명의 유튜브 채널이라는 강력한 뉴미디어 플랫폼과 텍스트를 상호 결합하여 트랜스미디어(Transmedia)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선구적인 출판 전략이다.

성공적인 출판 기획을 위해서는 시장에서 이미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레퍼런스 도서들의 성공 메커니즘을 해부하고, 그들이 내포한 구조적 한계를 정확히 진단하여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지식 교양서 시장의 메가 베스트셀러로 군림한 데이비드 S. 키더의 『1일 1페이지, 세상에서 가장 짧은 교양 수업 365』 시리즈와, 비선형적 독서 및 발상의 전환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을 심층 분석한다. 이를 통해 기존 시장의 성공 공식을 계승하면서도 독자들의 숨은 불만(Pain points)을 완벽히 해소할 수 있는 본 기획안만의 확고한 차별화 전략, 고유의 편집 형태, 그리고 옴니채널 마케팅 가이드라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 지식 교양 출판 시장의 거시적 트렌드 분석

출판 기획의 첫 단추는 현재 독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지식을 소비하고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다. 최근 몇 년간 국내 종합 베스트셀러 동향을 살펴보면, 실용적인 경제 지식과 인문학적 통찰을 동시에 제공하는 도서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스 로슬링의 『팩트풀니스』, 김난도 교수의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 이지성의 『에이트』,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와 같은 도서들은 단순한 교양의 축적을 넘어 급변하는 현대 사회의 위기와 기회에 대처하기 위한 실전적이고 강력한 사유의 도구를 제공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sup>2</sup>

이러한 시장에서 가장 돋보이는 현상은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지대넓얇)'류의 도서가 증명했듯, 복잡한 인문학적 개념을 현대인의 일상적 언어로 압축하여 전달하는 큐레이션 포맷의

대중화다.<sup>1</sup> 독자들은 좁고 깊은 학술적 탐구보다는, 광범위한 분야를 넘나들며 세계를 이해하는 거시적인 조감도를 원한다. 특히 최근에는 『금융의 교양 365』와 같이 금융의 탄생 역사부터 투자 시장의 버블, 혁신적인 인물과 에피소드를 하루 5분 분량으로 365일 동안 마스터하도록 구성된 특화된 마이크로 러닝 교양서까지 등장하며 '365일'이라는 형식적 틀이 출판계의 강력한 세일즈 포인트로 자리 잡고 있다.<sup>3</sup>

이는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만성적인 시간 부족과 인지적 과부하에 기인한다. 사람들은 매일 스마트폰을 통해 무한한 스크롤의 늪에 빠져 시간을 허비한다는 자괴감을 안고 살아간다. 이들에게 '하루 한 페이지' 또는 '아무 페이지나 한 장'을 읽는 행위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지적 효능감을 얻음으로써 일상의 루틴을 주도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심리적 안도감을 부여한다. 즉, 본 기획의 '365개 지혜' 구조는 단순히 콘텐츠를 나누는 물리적 분절을 넘어, 독자의 불안을 잠재우고 지적 성취감을 일일 단위로 보상해 주는 강력한 심리적 기제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 유사 도서 심층 분석 및 한계점 도출

기획의 차별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선점한 핵심 유사 도서들의 구조, 성공 요인, 독자 반응, 그리고 내재된 단점을 낱낱이 해부해야 한다.

### 『1일 1페이지, 세상에서 가장 짧은 교양 수업 365』 시리즈 분석

위즈덤하우스에서 출간되고 고원 번역가가 우리말로 옮긴 데이비드 S. 키더와 노아 D. 오펜하임의 『1일 1페이지, 세상에서 가장 짧은 교양 수업 365』는 전 세계 수백만 독자의 지지를 받은 현대 교양 출판의 대표적 성공 사례다.<sup>4</sup> 이 도서는 2019년 12월 2주 차 교보문고 종합 베스트셀러 5위에 오르는 등 출간 직후부터 돌풍을 일으켰으며, 이후 현대문화편, 인물편 등으로 시리즈를 성공적으로 확장했다.<sup>2</sup>

평가 지표	핵심 요인 및 메커니즘 분석	시장 파급 효과
권위와 신뢰성	다양한 기업을 설립한 성공한 CEO이자 투자자인 키더와 NBC 뉴스 사장 오펜하임이라는 저자의 압도적 이력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들이 '선별한' 지식이라는 점에 강력한 권위를 부여했다. <sup>4</sup>	독자들은 팩트 체크를 위한 노력 없이 저자의 권위에 기대어 교양을 안심하고 섭취하게 됨.
구조의 혁신성	역사, 문학, 미술, 과학, 음악, 철학, 종교라는 7대 분야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요일별로 배치하여 365일의 커리큘럼을 완성했다. <sup>6</sup> 독자가 책갈피를 꽂아두고 매일 습관처럼 소비하게 만든	'1일 1페이지'라는 직관적인 문구가 인문 교양서의 무거운 진입 장벽을 완전히 허물어버림. <sup>5</sup>

	루틴(Routine) 형성의 교과서적 모델이다.	
<b>분량의 최적화</b>	단조로운 일상에서 벗어나 지적 탐험을 가능케 하면서도, 한 번에 가볍게 읽고 기억할 수 있는 최적의 분량(1페이지)으로 배움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했다. <sup>2</sup>	바쁜 현대인에게 강력한 어필 요소로 작용하여 대중적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함.

그러나 이러한 화려한 성공 이면에는 뚜렷한 구조적 한계와 독자들의 아쉬움이 존재한다. 서평 및 독자 후기 데이터를 심층 분석해 보면, '요일별 7개 분야 강제 전환' 방식이 독서의 유기적 흐름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한 독자는 한 인물이나 특정 시대적 맥락에 대한 이야기가 연속적으로 전개되지 않고 요일별로 흩어져 있어 집중해서 읽기 힘들며, 관련된 부분은 따로 읽기보다 묶어서 읽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불만을 토로했다.<sup>9</sup> 미술 등 특정 주제 하나만을 다루는 스피노프 도서가 통일성 측면에서 더 낫다는 반응도 존재한다.<sup>10</sup>

더욱 치명적인 단점은 지식의 깊이와 통찰의 부재다. 하루에 한 페이지씩 다양한 분야를 기계적으로 훑다 보니, 특정 지식에 대한 기본 배경이 부족한 독자는 그저 '수박 겉핥기'식으로 텍스트를 스쳐 지나가게 된다.<sup>9</sup> 인문학을 꾸준히 접해온 독자층에게는 이 책이 매우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으며, 복잡한 사유를 싫어하는 초심자에게만 구미가 당기는 '정제소' 역할에 머물렀다는 비판도 제기된다.<sup>1</sup> 이는 파편화된 사실(Fact)의 나열이 유기적인 지혜(Wisdom)로 승화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큐레이션 도서의 본질적인 딜레마다.

## 베르나르 베르베르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 분석

열린책들에서 출간된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은 지식 큐레이션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작가의 고유한 세계관과 결합할 때 얼마나 폭발적인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다. 이 책은 작가가 14세 때부터 자신의 흥미를 끄는 역설적 지식과 발상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사실들을 기록한 노트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총 542항목의 지식, 일화, 잠언, 단상을 수록하고 있다.<sup>11</sup>

분석 관점	핵심 내용 및 도서의 특징	독자 경험에 미치는 영향
<b>비선형적 구조</b>	1페이지부터 순차적으로 읽을 필요가 전혀 없는 구조. 97편의 독특한 이야기가 인간, 자연, 과학의 이면을 독립적으로 보여주며 무작위 독서를 유도한다. <sup>12</sup>	독자에게 강제된 학습 진도를 요구하지 않아 심리적 부담이 없으며, 우연히 펼친 페이지에서 뜻밖의 통찰을 얻는 지적 쾌감(Serendipity)을 극대화함.

<b>철학적 사유 방식</b>	베르베르는 플라톤의 『프로타고라스』 등 대화편을 읽고 그 사고방식을 차용하여, 일방적인 정보 전달이 아닌 플라톤적 사상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질문을 던지는 방식을 취한다. <sup>13</sup>	독자가 수동적 정보 수용자에 머물지 않고,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경험하게 만든다. <sup>12</sup>
<b>포맷의 확장성</b>	방대한 텍스트의 장벽을 낮추기 위해 김수박 만화가 등과 협업하여 만화 시리즈로 재구성되었다. 이는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 독자층까지 아우르는 파급력을 지닌다. <sup>12</sup>	두꺼운 분량이 주는 물리적 부담감 <sup>16</sup> 을 해소하고,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만화, 웹 콘텐츠 등)로 원소스 멀티유즈(OSMU) 확장이 매우 용이함을 입증함.

본 기획안의 핵심 개념인 "아무 쪽이나 펼쳐 읽을 수 있는 지혜"는 바로 이 베르베르식 비선형 구조에서 그 성공의 당위성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책 역시 '방대한 지식의 백과사전'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물리적 두께가 매우 두꺼워 일반 대중이나 청소년 독자에게 완독의 부담을 준다는 한계가 존재한다.<sup>16</sup> 또한 개인 작가의 상상력에 크게 의존하는 노트 형식이므로, 현대 사회의 복잡한 사회, 경제적 이슈를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해설하는 데는 일정한 목적성의 한계를 지닌다.

## 확고한 차별화 전략: '융합적 지혜 매트릭스'와 '비선형적 다차원 독서'

유사 도서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론은 명확하다. 대중은 『1일 1페이지』가 제공하는 형식적 편의성(짧은 호흡, 낮은 진입장벽)을 원하면서도, 내용 면에서는 그 한계인 지식의 단절을 극복하고 베르베르식의 깊이 있는 상상력과 통찰(유기적 맥락,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가제 『365일 세상의 모든 지혜』는 이 두 가지 상충하는 요구를 완벽하게 조화시키는 혁신적인 구조를 채택해야 한다.

### 4대 대주제(인문, 사회, 역사, 경제)의 입체적 융합 설계

기존의 『1일 1페이지』는 7개 분야를 칸막이처럼 분리하여 요일별로 강제 할당함으로써 사고의 흐름을 단절시켰다. 본 기획은 이를 타파하기 위해 인문, 사회, 역사, 경제라는 4개의 대주제를 독립된 학문 분과가 아닌, 세상을 입체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4개의 '교차 렌즈'로 규정한다. 하나의 현상이나 에피소드를 다룰 때, 이 4가지 관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서술되는 '융합적 글쓰기'를 지향한다.

예를 들어 '튤립 파동(Tulip Mania)'이라는 소재를 다루는 페이지가 있다고 가정하자. 기존 교양서라면 이를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나 '경제적' 버블 현상 중 하나로 건조하게 서술하고 끝냈을 것이다. 그러나 본 기획안에서는 서두에 역사적 팩트를 제시하고(역사), 이것이 자본주의 시장 메커니즘에서 어떻게 버블을 형성하는지 설명하며(경제), 대중의 불안과 탐욕이 군중 심리로 발현되는 과정을 분석하고(사회), 궁극적으로 현대 한국 사회에서 '완벽주의'나 경쟁에 내몰려 비합리적 선택을 하는 인간 본성(인문)에 대한 성찰로 결론을 맺는다.<sup>17</sup>

이렇게 구성된 1페이지는 단편적인 정보의 나열이 아니라, 독자가 자신의 삶과 내면을 비추어 볼 수 있는 하나의 완결된 철학적 에세이로 기능한다. 긍정적인 역사뿐만 아니라 실패하고 부정적인 역사 역시 정치적 시각이 아닌 균형 잡힌 시각으로 다루어 현재의 반면교사로 삼게 함으로써 지식의 실용적 가치를 극대화한다.<sup>18</sup> 이러한 융합적 접근은 인문학적 소양이 깊은 독자에게도 지적 유희를 선사하며, 초심자에게는 파편화된 지식을 하나의 맥락으로 꿰어내는 강력한 통찰력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 '우연의 미학'을 구현하는 아날로그 하이퍼링크(Hyperlink) 시스템

"아무 쪽이나 펼쳐 읽을 수 있는 365개 지혜"라는 개념은 독자에게 자유를 부여하지만, 자칫 지식의 산발적인 흩어짐을 초래할 수 있다. 베르베르의 책이 주었던 예측 불가능한 발견의 기쁨을 유지하면서도 체계적인 지식의 축적을 돕기 위해, 종이책 내부에 '아날로그 하이퍼링크' 형태의 크로스 레퍼런스(Cross-Reference) 시스템을 도입하는 전략을 제안한다.

매 페이지 하단에는 현재 읽고 있는 지혜의 내용과 사상적으로, 혹은 인과적으로 연결된 책 내부의 다른 페이지 번호를 아이콘과 함께 표기한다. 예를 들어 "관련 지혜 확장: 기술 혁명에 따른 현대 사회의 이데올로기 변화는 142쪽(사회)을, 과거 비슷한 패러다임 전환기의 혼란은 88쪽(역사)을 참조하세요"라는 식이다.

이 혁신적인 장치는 독자가 1일부터 365일까지 순서대로 읽는 전통적인 '수직적 독서' 방식을 고수할 수도 있고,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페이지를 넘나들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수평적 독서'를 자발적으로 설계할 수도 있게 만든다. 강제된 요일별 커리큘럼에서 벗어나 독자 스스로 지식의 지도를 그려나가는 능동적인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기존 교양서들이 지녔던 지루함과 몰입도 저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 트랜스미디어 연계: 동명 유튜브 채널과의 시너지 전략

본 출판 기획의 가장 강력하고 고유한 무기는 바로 '동명의 유튜브 채널을 보유(혹은 연계)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대 콘텐츠 소비의 최전선에 있는 유튜브 영상과, 가장 정제된 지식 매체인 종이책을 결합하는 트랜스미디어(Transmedia) 세계관 구축은 초기 마케팅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면서도 팬덤의 깊이를 더하는 핵심 전략이다.

### 매체 특성에 따른 콘텐츠의 해상도 분리 전략

동일한 내용을 유튜브와 책에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은 오히려 매체의 매력을 반감시키고 자기잠식(Cannibalization)을 초래한다. 영상과 텍스트는 각자의 매체적 특성에 맞게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유튜브 채널은 '시각적 후크(Hook)와 현상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담당한다. 365개의 지혜 중 영상으로 구현했을 때 가장 자극적이고 대중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에피소드(예: 미스터리한 역사적 사건, 기발한 경제 사기극, 인물 간의 갈등 등)를 선별한다. 화려한 시각 자료, 아카이브 영상, 빠른 호흡의 내레이션을 통해 시청자의 이목을 단숨에 사로잡고 몰입도를 극대화한다. 영상의 흐름은 현상의 신기함과 그에 얽힌 흥미진진한 드라마에 집중된다.

반면, 단행본 도서는 영상이 다루지 못한 '깊은 철학적 사유와 내밀한 성찰' 공간을 제공한다. 유튜브 영상이 휩쓸고 간 감정의 여운 위에서, 책은 그 현상을 지배하는 근본적인 원리와 4대 대주제 관점에서의 심층 분석을 텍스트의 정교한 언어로 차분히 서술한다. 영상의 말미에는 반드시 콜투액션(Call to

Action)을 삽입하여, "이 역사적 스캔들 이면에 숨겨진 자본주의의 소름 돋는 경제 법칙과, 이를 통해 우리가 세상을 다르게 보아야 하는 3가지 통찰은 책 『365일 세상의 모든 지혜』 215페이지에 담겨 있습니다"라고 안내함으로써 시청자를 도서 구매 독자로 강력하게 전환(Conversion) 시킨다.

## 인터랙티브(Interactive) 팬덤 구축과 지식의 양방향 소통

출판은 전통적으로 일방향 매체였으나, 유튜브 채널과의 연계는 이를 실시간 양방향 매체로 진화시킨다. 유튜브 커뮤니티 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기획 단계부터 잠재 독자들을 콘텐츠 생성 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특정 인문학적 딜레마나 사회적 트렌드에 대해 구독자들에게 투표를 진행하고, 그들이 남긴 날카로운 댓글이나 철학적 질문들을 책의 관련 에피소드 하단에 익명으로 수록한다. 이는 독자에게 "내가 이 책의 완성에 기여했다"는 강력한 소속감과 효능감을 부여하며, 책이 출간되었을 때 채널 구독자들이 자발적으로 입소문을 내는 강력한 앰버서더(Ambassador)로 활동하게 만드는 팬덤 비즈니스의 핵심 메커니즘이다. 더 나아가, 책 속 특정 페이지에 QR 코드를 삽입하여, 글로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과학 실험이나 청각적 자극이 필요한 음악적 해설 등을 바로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시리스(Seamless)하게 융합되는 독서 경험을 제공한다.

## 콘텐츠 구성 및 편집 디자인(Editorial & UX) 최적화 가이드라인

'아무 쪽이나 펼쳐 읽을 수 있는'이라는 물리적 행위가 지적 쾌감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책의 레이아웃과 편집 디자인이 인지 과학적 관점에서 철저히 계산되어야 한다.

### 시각적 인지 부하의 획기적 축소

도서의 모든 스프레드(Spread, 펼침면)는 독립적인 하나의 소유주여야 한다. 글이 다음 장으로 넘어가 독자가 페이지를 넘기며 맥락을 놓치게 하는 편집은 절대 금물이다. 왼쪽과 오른쪽, 두 페이지 안에 하나의 완결된 지혜가 온전히 담기는 레이아웃을 엄격히 준수한다.

또한, 뾰족한 줄글로 1페이지를 채우는 것은 정보 과잉에 지친 독자들에게 피로감만 가중시킬 뿐이다.<sup>1</sup> 텍스트는 핵심 개념을 정의하는 블록, 배경지식을 서술하는 단락, 그리고 철학적 통찰을 강조하는 명언 인용문(Pull-quote) 형태로 시각적 위계가 명확히 분리되어야 한다. 여백(Margin)은 물리적 빈 공간을 넘어 독자가 방금 읽은 내용을 머릿속에서 반추하고 소화할 수 있는 '숨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넉넉히 배치되어야 한다.

### 데이터 시각화와 메타포(Metaphor)의 적극적 도입

복잡한 인문, 사회, 역사, 경제적 인과관계를 설명할 때는 긴 줄글 대신 직관적인 인포그래픽(Infographic)이나 개념을 수식화한 메타포를 적극 활용한다. 예를 들어, 한 사회의 문화적 성숙도와 경제적 양극화 사이의 관계를 시각적인 함수 그래프처럼 표현하여 페이지 중앙에 배치하는 것이다.

추상적인 인문학적 담론을 직관적인 표나 도식으로 정리하여 삽입하는 전략은 독자의 이해 속도를

극적으로 단축시킨다. 본 도서의 기획 의도를 설명하는 아래의 비교표와 같이, 핵심 텍스트 안에서도 4대 대주제가 상호작용하는 메커니즘을 도식화하여 독자의 뇌리에 각인시켜야 한다.

지식의 진화 단계	처리 방식	독자 수용 형태	본 기획 도서의 포지셔닝
Data (데이터)	파편화된 사실의 무작위 나열	피로감 및 인지적 한계 직면	회피 대상 (단순 검색으로 대체 가능)
Information (정보)	특정 기준에 의한 사실의 군집화	맥락 없는 정보의 축적	기존 요일별 교양서의 한계 지점
Knowledge (지식)	정보의 체계화 및 이론적 연결	인지적 이해 도달, 단 실용성 부족	학습서 및 전공 도서의 영역
Wisdom (지혜)	통찰과 비판적 사유의 융합 적용	현상 이면의 본질 파악 및 삶에의 적용	『365일 세상의 모든 지혜』의 궁극적 목표

페이지 상단 코너에는 4대 대주제(인문, 사회, 역사, 경제)를 상징하는 미니멀한 컬러 아이콘을 배치하고, 다루고 있는 지혜가 어느 렌즈들의 결합인지(예: 인문+역사 아이콘 동시 점등) 시각적으로 표시한다. 이는 독자가 책을 좌르륵 넘길 때 색상과 아이콘이 변화하며 시각적 쾌감을 주는 형태적 매력 포인트로 작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선형적 목차(1일 차~365일 차) 외에, 권말에 주제별, 인물별, 나아가 감정 상태별(예: 인간관계에 지쳤을 때 읽는 지혜, 자존감이 무너질 때 펼치는 경제학적 위로 등) 다차원 색인(Index)을 부록으로 제공하여, 이 책이 한 번 읽고 버려지는 소비재가 아니라 평생 곁에 두는 '인생의 레퍼런스 북'으로 포지셔닝되게 한다.

## 세일즈, 마케팅 전략 및 장기적 생명력 확보 방안

아무리 훌륭한 출판 기획도 치밀하게 설계된 마케팅 깔때기(Funnel) 전략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보의 홍수 속에 묻히고 만다. 연계된 유튜브 채널을 베이스캠프로 삼아 단계별로 파괴적인 마케팅을 전개해야 한다.

출간 전(Pre-launch) 단계에서는 예열과 기대감 조성이 핵심이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당신이 세상을 단편적으로밖에 보지 못했던 이유",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정한 지혜를 건져내는 법"과 같은 주제의 티저 영상을 시리즈로 공개한다. 동시에 열성 구독자들을 대상으로 가제본 형태나 PDF 샘플(약 30일 치 분량)을 사전 배포하여 출간 전부터 수백 건의 자발적 리뷰와 입소문(Viral)을 생성하는 얼리 어답터

그룹을 구축한다.

출간 직후(Launch) 단계에서는 베스트셀러 진입을 위한 총력전이 필요하다. 365개의 지혜 중 가장 영감을 주는 문구들을 발췌하여 고급스러운 데일리 캘린더나 다이어리 굿즈로 특별 제작해 초판 한정으로 증정한다. 이 책이 연말연시 자기 계발이나 선물용으로 가장 적합한 아이템임을 각인시키는 전략이다. 또한, 기존에 『1일 1페이지』 시리즈나 유발 하라리의 저서 등을 즐겨 읽었던 지적 호기심이 강한 독자층을 정밀 타겟팅하여<sup>1</sup>, 지식 정보 큐레이션 전문 유튜버들과 북튜버들에게 콜라보레이션 리뷰를 대대적으로 의뢰한다. 마케팅 메시지는 "파편화된 수박 겉핥기 지식에 지친 당신에게 바치는, 단 하나의 융합형 지혜서"로 일관성 있게 송출한다.

장기적 생명력 확보(Long-tail)를 위해서는 기업체와 교육 기관을 겨냥한 B2B 시장 개척이 필수적이다. 역사와 경제, 사회를 관통하는 통찰력은 기업 리더십 교육이나 신입사원 교양 함양 과정에 완벽하게 부합한다. 저자 혹은 편집팀의 강연 프로그램과 도서 일괄 구매를 결합한 특판 패키지를 기획한다. 나아가 도서가 안착한 후에는, 베르베르의 저서가 만화 버전으로 파생되어 청소년 독자까지 흡수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sup>12</sup>, 『어린이를 위한 365 세상의 지혜』 만화 시리즈나, 특정 직군을 위한 스피노프 버전을 후속으로 기획함으로써 단일 도서를 넘어선 거대한 지식재산권(IP) 프랜차이즈로 성장시켜야 한다.

## 결론 및 종합 제언

현대 지식 산업의 각축장에서 가제 『365일 세상의 모든 지혜』 출판 기획이 거둔 성공의 열쇠는, 시장의 성공 공식을 계승하면서도 기존 도서들이 간과했던 독자들의 심층적 갈증을 얼마나 정확히 해소 주는가에 달려 있다. 단순한 정보의 요일별 기계적 배열로는 더 이상 까다로워진 독자들의 지적 수준을 만족시킬 수 없다. 데이비드 S. 키더 시리즈가 증명한 마이크로 러닝의 압도적 편의성과, 베르나르 베르베르 도서가 보여준 발상을 전환하는 비선형적 상상력의 결합이 필수불가결하다.

본 기획안이 제안하는 4대 대주제(인문, 사회, 역사, 경제)의 입체적 융합 설계와, 페이지를 자유롭게 넘나들게 하는 아날로그 하이퍼링크 시스템은 팩트의 나열을 통찰이 담긴 지혜로 승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 될 것이다. 여기에 동명의 유튜브 채널이라는 뉴미디어를 지렛대 삼아, 텍스트의 깊이와 영상의 전파력을 결합하는 트랜스미디어 전략을 완벽히 실행한다면 폭발적인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

출판은 결국 시대를 읽고 그 시대가 결핍을 느끼는 가치를 가장 적절한 형태로 패키징하여 제공하는 산업이다. 파편화된 숏폼 콘텐츠에 지쳐 자신의 삶을 지탱해 줄 단단한 닻을 찾고 있는 독자들에게, 철저한 기획력과 심미적인 편집을 겸비한 이 도서는 단순한 인문 교양서를 넘어 세상을 다르게 보게 만드는 매혹적인 '지혜의 나침반'이자 출판 시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 참고 자료

1. [중고]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 현실 세계 편 (반양장) | 채사장 - 알라딘, 3월 10, 2026에 액세스,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354031890>
2. [베스트셀러] 1위 '트렌드 코리아 2020' 8주 연속, '1일 1페이지, 세상에서 가장 짧은 교양 수업 365' 경총 - 더센뉴스(The CEN News), 3월 10, 2026에 액세스, <https://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9937>
3. 금융의 교양 365 | 김정수 | 캐피털박스 - 예스24, 3월 10, 2026에 액세스,

4. <https://www.yes24.com/product/goods/123669135>  
1일 1페이지, 세상에서 가장 짧은 교양수업 365: 현대문화편 | 위즈덤하우스 - 교보ebook, 3월 10, 2026에 액세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preview/4801191119160?chl=lib>
5. 1일 1페이지, 세상에서 가장 짧은 교양 수업 365 : 인물편 - 알라딘, 3월 10, 2026에 액세스,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246061715>
6. 1일 1페이지, 세상에서 가장 짧은 교양 수업 365 : 현대문화편 - 알라딘, 3월 10, 2026에 액세스,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254614318>
7. 1일 1페이지, 세상에서 가장 짧은 교양 수업 365 : 인물편 | 데이비드 S. 키더 | 위즈덤하우스, 3월 10, 2026에 액세스,  
<https://www.yes24.com/product/goods/91160427>
8. [전자책] 1일 1페이지, 세상에서 가장 짧은 교양 수업 365 | 데이비드 S. 키더 | 위즈덤하우스, 3월 10, 2026에 액세스,  
[https://m.yes24.com/Goods/Detail/83567215?art\\_ch=40790?art\\_ch=55979](https://m.yes24.com/Goods/Detail/83567215?art_ch=40790?art_ch=55979)
9. [전자책] 1일 1페이지, 세상에서 가장 짧은 교양 수업 365 | 데이비드 S. 키더 | 위즈덤하우스, 3월 10, 2026에 액세스,  
<https://www.yes24.com/product/goods/83567215>
10. [예스리커버] 읽기만 하면 내 것이 되는 1페이지 미술 365 | 김영숙 | 비에이블 - YES24, 3월 10, 2026에 액세스, <https://www.yes24.com/product/goods/92909973>
11.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 | 베르나르 베르베르 | 열린책들 - 예스24, 3월 10, 2026에 액세스, <https://www.yes24.com/product/goods/104647674>
12.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 1 | 베르나르 베르베르 - 교보문고, 3월 10, 2026에 액세스,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01540482>
13.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 1 | 베르나르 베르베르 - 알라딘, 3월 10, 2026에 액세스,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6103314>
14. [중고]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 1 - 알라딘, 3월 10, 2026에 액세스,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289034682>
15. 만화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 1 | 만화 상상력 사전 3 | 베르나르 베르베르 | 알라딘, 3월 10, 2026에 액세스,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7461751>
16. [전자책] 만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상상력 사전 - 예스24, 3월 10, 2026에 액세스,  
<https://www.yes24.com/product/goods/97949662>
17. [전자책] 네 명의 완벽주의자 | 이동귀 | 흐름출판 - 예스24, 3월 10, 2026에 액세스,  
<https://www.yes24.com/product/goods/98559953>
18. [전자책] 하룻밤에 읽는 한국 근현대사 (개정판) | 최용범 | 페이퍼로드 - 예스24, 3월 10, 2026에 액세스, <https://www.yes24.com/product/goods/80860616>